

“일심화합 모음으로 중생 제도 앞장 서자”

천태종, 10월 31일 제12회 천태예술제 개최



천태종은 선율로 화합하는 제12회 천태예술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아름다운 묘음 화합의 소리가 삼광사 경내를 가득 채웠다. 10월 31일 깊어가는 가을 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의 경내는 자주 빛 고운 한복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800여 명의 합창단원들로 가득 채워졌다.

삼광사 뒤 백양산에는 휘황찬란하게 펼쳐진 조명에 가을의 산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다. 합창단을 맞아 야외무대에 자리하고 앉은 5000여명의 사부대중은 환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사월의 마지막 가을 밤 부산 삼광사 지관전 야외무대에서 '제 12회 천태예술제'를 봉행했다.

예술제 1부는 교육부장 장호 스님의 사회로 △삼각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국운융창기원 △인사말 △치사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 공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하는 설법이다”며 “올해는 개산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한해로 대조사님의 광대무변한 위신력을 다시 한번 기리고 소중히 간직하고픈 종도들의 바램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고 설명했다.

삼광사 경내 5000여 대중 운집
웅장한 무대에서 교성곡 선보여
삼광사 신도회 창립46주년도 진행

앞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천명의 합창단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선사 할 수 있는 힘도 각자가 맡은 파트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존중과 협력으로 화합을 이루는데서 마다하지는 것이다”며 “오늘 이 무대를 통해 우리 모두는 대중이 함께 살아가면서 무지개와 같이 '다름이 아름답다'는 화합의 열매를 맺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2부는 천태예술제 오프닝 동영상

을 시작으로 전국 천태합창단의 △묘법 연화의 노래 △빛과 생명의 노래 △기상의 노래 △정진의 노래 △자비의 노래 △구인사 창건의 노래 △오도의 노래 △중생귀의의 노래 △천태종 창건의 노래 △장엄 불사의 노래 △열반의 노래 △상월원각대조사 찬(讚)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 천태종 중앙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율력을 담은 교성곡들로 구성되어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또한 합창곡 중간 중간에서는 유망 성악가와 부산페스티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하연 국악단의 합연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한편, 삼광사(주지 무원)는 11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삼광사 신도회 창립 46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를 통해 삼광사는 이웃과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행복한 삶을 제시할 것을 서원했다. **하성미 기자**

지역 단신

지역민 위한 자비의 해수관세음 입상 점안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11월 5일 원오사 경내에서 해수관세음보살 입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의 증명은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법문은 통도사 법산 스님(경봉문도회 회장)으로 이어졌다.

해수관세음보살 입상 조성과정은 이렇다. 2013년 경내 주차장 공사 중 지하수가 발견됐고 개발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못이 형성됐다. 이후 5월 연못을 정비했으며 그 가운데 해수관세음보살 조성 불사를 진행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특별히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것은 이 지역이 소외계층이



많은 곳이다”며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지역의 아픔을 헤아려 주고 원오사 불자들이 함께 자비심을 내걸 바라는 마음으로 모셨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기장군불교聯, 지선 스님 초청대법회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와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재순)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을 초청해 11월 5일 부산 기장군정에서 제7회 선지식 초청대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기장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 20여명과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은 “불자들은 기복을 넘어 마음 수행과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바른 불교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테라와다불교 까티나 가사 법요식

(사)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사사나)는 11월 1일 부산 ‘붓다의 길 따라’ 선원에서 ‘까티나 가사 법요식’을 봉행했다.

까티나 가사 법요식은 남부불교에서 하안거 해제 후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의식으로 한달 기간에만 열린다.

이날 까티나 가사 법요식에는 상가라자 도성 스님, 아짤 뽀나와로 진용 스님을 비롯해 테라와다 상가 스님 12명이 참석했으며 불자들 100여 명이 가사를 공양했다. **하성미 기자**



진용 스님은 “법을 환희심으로 듣고 수행을 하며 어떤 경우에도 헛되어 시간을 보내지 마라”고 당부했다.

역대 조사 가르침 기리고 새 전법 원력 다져

부산 해운정사, 제1회 불조 심인 전등 다례대제 개최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은덕을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선종본산 해운정사(주지 도무)는 11월 5일 해운정사 불심인 조사전에서 ‘불조 심인 전등 다례대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진제 스님, 원로 의장 밀운 스님, 원로 부의장 원명 스님, 명선 스님 등 원로 스님 17여 명과 내빈 국회의원 배덕광, 동명대학교 설동근 총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권기선 등 7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해운정사 최초로 열린 ‘불조 심인 전등 다례대제’는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을 기리고 더욱 정진 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다례대는 주지 도무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종정 진제 스님의 헌화와 원로 스님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또 현대, 원승 스님의 발원문, 축원, 원로 의장 밀운 스님의 헌사, 내빈 축사,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종정 진제 스님은 “태고 선사의 가풍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경허 성우 선사에 이르러 아손(兒孫)이 번성하니,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선종을 널리 선양하여, 한국의 선법이 만방에 꽃을 피우고 있다”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헌사를 통해 “그동안 스님들이 조상 다례제를 소홀히 해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각 선조님들의 정신과 뜻을 되새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뭇생명의 행복과 안녕 기원합니다”

창녕 무심사, 우포늪에서 제4회 생명사랑 수록대제



창녕 무심사(주지 무심)는 11월 1일 창녕 이방면 장재마을과 우포늪에서 제4회 생명사랑 · 행복기원 수록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무심사는 매년 뭇 생명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록대를 열고 있다. 행사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법교의식으로 진행됐다.

장재마을은 매년 11월 풍년제로 고기잡이 배타기, 고기잡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무심사는 10월 25일 제2회 산신제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신제에는 인근 우포정사 대영 스님과 손태재 창녕군의회장, 노홍석 이방면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귀한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여 윤회와 업보에 괴달리지 말고 매사를 사랑으로 베풀라”며 “열심히 정진 기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부 산사음악회 식전에는 무심사 접근도로에 사찰을 안내하기 위한 ‘무심대장군 무심여장군’ 장승 점안식도 진행됐다. 음악회에서는 무심 스님의 법교 경연과 함께 색소폰 연주동호회의 공연과 승무원요 가요 합창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거조사 나한대제... 500여 명 일심기원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9일 영산전 앞마당에서 나한대제를 개최했다. 이날 나한제에는 거조사 회주 법타 스님을 비롯해 죽림사 회주 법의 스님, 불굴사 주지 덕조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관 스님은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자는 보조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수행가풍 정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거조사 회주 법타 스님은 “나한제는 한국불교 전통의 뿌리로 모두 함께 부처님



법에 따라 살아가길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나한제에 이어 2부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mm)
29호 12절 13매 (257×263mm)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